

회화기법(painting techniques)에 근거한 영상번역 지침도가 번역학습에 미치는 영향*

— 회화기법에 근거한 영상번역 지침도 중심으로

이 다 현
(백석예술대)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최근 미디어 관련 번역의 활발함에 따른 영상번역 교육에 있어서, 이해를 위한 ‘지침’을 ‘회화기법’에 근거하여 마련하고자 한다.

영상번역학에서의 해법¹⁾은 원 작가 및 감독이 추구하는 영상기호(SS) 전달을 위한 언어기호(LS) 고정전략²⁾에 있다. 따라서 20세기 미국소설의 이해를 위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2-A00210)

- 1) 시·공간 제한으로 함축성(implicature 그라이스(Grice 1967)이 큰 걸림돌이자 등가(equivalence)를 위한 열쇠(이다현 2007: 35); ‘부각’ 혹은 ‘생략’이 번역전략임.
- 2) 「영상기호번역 고찰-등가 틀을 이용한 후속방안(3)」(이다현 2009)

해서는 심리학기법이 소설에 미친 영향을 주목해야 하듯이, 예술 장르라는 공통된 관점에 있어서, 회화기법을 영상번역 학습에 적용한 시도는 흥미로운 학습 결과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 그에 따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기호’를 번역해야 하는 입장에서 시각적인 코드로 ‘부각과 생략’이란 공통된 회화기법을 지닌 피카소(Picasso)화법이 세잔(Cézanne)기법(이하 또는 ‘화법’)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언어를 매개체로 하는 문학 관점에서 보면, 스타인(Stein)이 세잔과 피카소의 화법을 문학에 도입하였고 헤밍웨이(Hemingway) 역시 스타인, 세잔, 그리고 피카소의 화법을 통해 부각과 생략의 문체로 함축된 메시지를 전달한 기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위의 회화기법을 활용하여 선행연구인 「영상번역을 위한 함축성 연구(이다현 2007)³⁾에서 ‘등가성 공식’ 및 “영상언어의 함축성에 의한 전환방법의 모형도(38-41)”를 기반으로 “대화함축⁴⁾과 유표적 구조(marked structure)⁵⁾” 전략에 의한 ‘영상번역 지침도’를 도출하여 영상번역 교육에 접목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증진 및 흥미유발을 추구하고자 한다.

끝으로 ‘스크린 영어’와 ‘번역 연습’ 수업을 통해 이상의 결과, 즉 ‘회화기법에 근거한 영상번역 지침도’에 의해 톡톡 튀는 대사로 LS부각 및 생략 전략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박찬욱 2005)’와 최고로 감각적이고 화려한 코미디로 평가⁶⁾받은 ‘*The Devil Wears Prada*(Frankel 2006)’에 대한 각각 한영·영한 번역분석, 논의 및 대안(AT; alternative text)을 제시한다.

3) 영상(영화)을 기호론적 관점에서 이원화하여 각각 언어기호론(LS: language semiotics)과 나머지 부분은 영상기호론(SS: screen semiotics)적 입장에서 논한다.

4) 대화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 그라이스(1967) 제안, 의사소통 준수 원칙: 1. 협력의 원리, 2.대화격률: 양의 격률, 질의 격률, 관계 격률, 태도 격률

5) 텍스트 구성에서, 각 절의 주제(theme)는 화자나 저자의 출발점, 주제가 평언(rheme)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할러데이 Halliday 1978: 134~178). 영어의 유표적 주제는 ‘전치 주제, 술부 주제, 일치 주제’로 분류

6) <http://movie.naver.com/movie/bi/pi/basic.nhn?code=8232> (2006)

2. 회화코드와 함축의 미학

2.1 번역학 관점의 회화기법

2.1.1 세잔과 피카소, 그리고 스타인

“정물(*Nature Morte*)”, “부엌의 탁자(*La Table de Cuisine*)” 등을 비롯한 풍경, 인물, 정물화 등은 일부가 생략, 확대, 과장, 축소, 기괴함, 일그러진 형태로 부각된 세잔과 피카소기법을 소수만(2009)은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첫째, 대상(object)의 본질적 속성과 특질 포착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시점을 이동하면서 실제 모습을 추구한다. 둘째, 기존의 세세한 묘사기법과는 달리 원통(cylinder), 구체(sphere), 원추(cone)로 압축하여 기본적인 기하학적 양식(basic geometric pattern)으로 표현한다. 셋째, 대상의 필요불가결한 특성(*sine qua non*)만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영원한 인상을 추구한다.

피카소는 흑인 조각과 세잔의 단순 기법으로 리얼리즘을 발전시켜 입체감과 깊이를 표현한 큐비즘(cubisme 1907-8)을 탄생시킨다. 이 회화기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하학적 구성, 시점의 이동, 대상의 속성 및 특질에 대한 표현기법이다. 발가벗은 다섯 여인들의 인체를 각각의 각도에서 3차원의 입체를 2차원으로 조각하여 재배열했다. 왼쪽 3명의 좌우시선이 각각이 정면을 보거나 옆을 본다. 2명의 시선도 좌우 방향과 눈의 형태도 이상하다. 둘째, 오른쪽 2명의 여인중, 뒤쪽 여인 얼굴은 아프리카 흑인 조각상을 연상시킨다. 등을 보이며 앉아 있는 앞쪽 여인은 아프리카 가면 쓴 모습이다. 최초 원근법과 명암법의 전통 말살은 흑평과 함께 충격적 기법이었다(35-37).

문학작품을 회화처럼 그려했던 스타인은 534편 대부분과 작가인생 중기 당시를 아예 “회화기(Painting Period)”라고 직접 회고했다(Stein *Everybody's Autobiography* 180). 1906년 피카소는 ‘거트루드 스타인의 초상(*Portrait de Gertrude Stein*)’을 그렸다. 반면 스타인은 세잔, 피카소, 마티스, 즉 『세 화가의 초상화』(*Three Portraits of Painters: Cézanne, Matisse, Picasso*)를 통해 세잔과 피카소의 회법을 문학에 도입했다. 그 사실을 입증하는 스타인의 고백을 하스(Haas 1971)와 워크(Walker 1984)가 전한다.

내가 쓴 모든 글들은 플로베르와 세잔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중략) 그 구성에 대한 큰 감동으로 『세 여자』를 썼다. (중략) 흑인여자의 이야기 “멜란크사(Melanctha)”는 그 구성기법의 예다. (하스 15, 위크13 소수만 재 인용)

또한 스타인은 “당시 나만이 피카소를 이해했다. 아마도 피카소의 표현기법과 똑같이 문학으로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스타인 Picasso 16)”라고 피카소 화법의 도입사실을 서술했다.

다음은 세잔이 피카소에게, 세잔과 피카소는 스타인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논술에 이어서 헤밍웨이의 ‘생략과 부각’기법인 회화코드를 통해 영상번역학 관점에서 이해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2.1.2 세잔, 피카소, 스타인에 이은 헤밍웨이, 그리고 번역학

헤밍웨이는 세잔의 화법을 문체에 담아 단순, 반복, 압축, 생략, 그리고 부각에 의한 이미지기법 등, 실로 많은 시도와 실험을 하였다. 벽에 걸 수 있는 그림처럼 글을 쓰라는 스타인의 권고로 세잔 화법을 도입한, 파리시절의 헤밍웨이의 회고를 보자.

“It’s good,” She said. “That’s not the question at all. But it is *inaccrochable* That means it is like a picture that a painter paints and then he cannot hang it when he has a show and nobody will buy it because they cannot hang it either.” (Stein *A Moveable Feast* 15: 9-12)

좋은 작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벽에 걸 수는 없는(*inaccrochable*)’ 작품입니다. 그림을 전시장에 내걸 수 없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내걸 수 없으니 살 사람도 없겠지요.... ‘벽에 걸 수 없는’ 글은 어떤 것도 쓰지 마세요.

다음은 스타인의 가르침으로, 세잔 영향의 새 문장비법의 글을 쓴 헤밍웨이의 고백을 들어보자.

I was learning something from the painting of Cézanne that made

writing simple true sentences ... I was learning very much from him but I was not articulate enough to explain it to anyone. (ibid. 13: 15-23)

내 작품의 차원을 높이기 위한 기법은 지나칠 정도의 단순함이... 세잔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충분히 설명하여 표현하지 않았다.

“진실된 단순한 서술문(true simple declarative sentence, ibid. 12: 25~27)”을 고민한 헤밍웨이에게 세잔 화법은 그 해답이었다. 세잔의 기하학적 표현기법에 의한 ‘생략기법’은 선행연구 “영상언어의 함축성에 의한 전환방법”(이다현 2007: 40-42)”에서 등가를 위한 ‘방법2’와 일맥상통한다. $SST_2(A'-\alpha < B'+\beta) \Rightarrow TST_2(A'-\alpha < B'+\beta)$ 에서 ‘A’- α ’의 개념은 영상언어 표현방법에 있어서 ‘LS 축소’ 개념에 따른, ‘B’+ β ’인 ‘SS 확대’의 표현이 된다. 이는 영상기호를 강조하는 영상번역에서 ‘함축성에 의한 언어기호 생략’ 전략과 같은 맥락이다.

박윤철(2008: 172)은 자막번역에 있어서 발화와 영상, 시각기호들의 중복 정보나 이전 발화와 응집성 또는 결속성을 통해 일부가 목표텍스트에 전달되지 않는 생략현상을 강조한다. 촘스키(Chomsky 1965: 140-55) 역시 “언어의 경제성 원리인 최소주의 관점”에서 생략에 관해 접근했다. 그의 이론에서 ‘생략’은 ‘부각하고자하는 것 외는 형태를 없애버린’ 피카소의 조형기법과 세잔의 속성 및 특질표현기법, 즉 기하학적 양식기법과 상통한다.

다음은 피카소의 조형기법에 따른 스타인의 기본적인 속성어기법과 헤밍웨이의 빙산이론(Iceberg Theory)의 예증이다. *The Old Man and the Sea*에서 주인공에 대한 인물묘사를 통하여 살펴보자.

7) ‘SST’의 함축성에 의한 등가성 기본공식

방법1. $SST(A \Leftrightarrow B) \Rightarrow TST(A' \Leftrightarrow B')$ 에서 ‘ $A \Leftrightarrow B$ ’는 A(LS: 언어기호)와 B(SS:영상기호)의 의미적 크기 면에서 ‘ \Leftrightarrow ’인 ‘등치’라는 의미. ‘ \Rightarrow ’는 ‘등가전환’의 표시(한글자수 기준, 11~20자: $A \Leftrightarrow B$)

방법2. $SST(A < B) \Rightarrow TST(A' -\alpha < B' +\beta)$ 에서 ‘A- α (α : 언어기호성)’는 두 기호의 상대적 비율상, SST의 A인 LS에 대한 축소, 그에 비례하여 ‘B+ β (β : 영상 기호성)’는 ‘SS 확대’의 의미, SS 의존율이 높다.(한글자수 기준, 1~10자: $A < B$)

방법3. $SST(A > B) \Rightarrow TST(A' +\alpha > B' -\beta)$ 에서 ‘A+ α ’는 두 기호의 상대적 비율상, ‘LS 확대’에 따른 ‘B- β ’는 ‘SS 축소’로 LS 의존율이 높다(한글자수 기준, 20~30자 이상: $A > B$)

The brown blotches of the benevolent skin cancer the sun brings from its reflection on the tropic sea were on his cheeks. The blotches ran well down the sides of his face and his hands had the deep-creased scars from handling heavy fish on the cords(Hemingway *The Old Man and the Sea* 5-6).

그의 뺨에는 열대 지방의 태양이 바다에 반사되어 양성 피부암의 갈색 반점들이 퍼져있다. 반점들은 얼굴 양편 훨씬 아래까지 축 쳐져 있었고 고기 손질로 깊어진 손의 흉터들은 사막의 부식지대였다.(이다현)

마치 피카소의 그림처럼 모호한 인물스케치이다. 키, 체격, 손발의 형태, 수염, 얼굴 등이 세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노인의 강인한 성격을 부각하기 위해 빙산이론의 틀 속에서 필요한 특성을 최소한의 속성어만으로 표현한다. 스타인과 피카소의 기법들을 아우른 문체이다. 그의 빙산이론은 수면이 감추어진 거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듯이 문장도 간결하지만 풍부한 내용을 함축하여야만 진실한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영상번역에 있어서 언어기호를 선택하는 일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상번역은 단순 언어적 층위에서가 아닌, 양 기호(SS·LS) 층위에서 연구가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인용된 “...brown blotches of the benevolent skin cancer the sun...sea were on his cheeks(Hemingway *The Old Man and the Sea* 5-6)” 이런 어휘선택들은 힘든 삶에 노인의 강인한 대처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어휘들이라고 소수만은 말한다. 그런 문장을 쓰려면 언어선택에 대한 식견과 기술에 탁월해야함을 강조한다.(2009: 48)

3. 회화기법에 근거한 영상번역 지침도

영상언어 텍스트에서의 등가성은 함축성에 따른 ‘생략’ 및 ‘유표적 전략’이 효율적이라는 교육적 방안을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표3】(이다현 2007: 40-42)’을 기반으로 ‘영상번역 지침도’의 지침1, 2의 근거를 ‘회화기법’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표1】 회화기법에 근거한 영상번역 지침도(The Guide based on Painting Techniques)

구분	함축성 · 전환공식	영상번역 · 전략지침	회화코드 · 전략명칭
지침 1	TST2.(A' -α < B' +β) (SS 부각)	Conversational Implicature (LS 생략)	LS on Cézanne (기하학적 양식기법)
지침 2	TST3.(A' -α > B' +β) (LS 강조)	Marked Structure (LS 강조, 부각)	LS on Picasso (큐비즘)

지침1은 ‘함축성에 의한 전환방법2’, ‘SST(A<B)⇒TST2.(A' -α<B' +β)’에 해당한다. 잉여적인 ‘LS에 대한 번역은 ‘생략’과 함축적 전환’ 방법인 ‘지침1’을 권장한다. 지침1은 세잔의 ‘기하학적 양식기법’에 근거하여 SS에 초점을 두어 ‘LS on Cézanne’으로 명명, 그에 따른 ‘LS 고정전략’이 된다. 지침2는 강조하고자하는 LS에 초점을 두어 TSL 역시 강조된 함축기법으로써, 선행연구에서의 결과물인 ‘영상언어의 함축성에 의한 전환’ 방법과는 상이한 관점으로 ‘방법 3, SST(⇒TST(A' +α>B' -β)’의 전략을 준수해 주기를 권장한다.

재강조하자면 본 연구가 큐비즘에 근거하여 ‘LS on Picasso’ 기법이라 명명한 LS강조전략, 즉 유표적 전략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에서의 ‘【표3】 (ibid.)’과는 달리, 강조된 LS에 대한 등가를 위해서 ‘방법3’ 이 아닌 다른 전략은 지양해 주기를 권장한다. 선행연구의 결과물인 ‘【표3】 (ibid.)’에서는 ‘SST1. SST2.’가 ‘③TST3.’으로는 ‘→’표기로 ‘비적절한 변환’의 방법이 되지만 아래의 ‘【표2】 회화기법에 근거한 영상번역 지침도’에서는 ‘SST1.’에서 ‘②TST2.’를 제외한 모두를 ‘→’표기로 ‘비적절한 변환’의 번역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차별화된 관점에서의 논의를 공식화 한다.

【표2】 회화기법에 근거한 영상번역 지침공식⁸⁾

SST1.(A \Leftrightarrow B)	○	\Rightarrow	① TST1.(A' \Leftrightarrow B')
SST2.(A- α < B+ β)	○	\Rightarrow	② TST2.(A'- α < B'+ β)
SST3.(A+ α > B- β)	○	\Rightarrow	③ TST3.(A'+ α > B'- β)

즉 위의 표는 내포하는 영상기호의 특성상, 다의성을 생산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의미고정을 전제해야하므로 대안으로 대화함축 및 유평적 전략의 ‘회화기법’을 관점에서 도출되었다. 그에 따른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3.1 LS on Cézanne

세잔은 실재(external reality) 표현을 위해 영원성을 띠는 필요불가결의 속성이나 특질만을 포착하여 재구성한다. 그런 세잔 화법을 도입한 근거의 문체들로 구성된 스타인의 작품 『세 여자』에 나오는 다음 구절도 그 중의 하나다.

ST.1. Mrs. Lehtman was a good looking woman. She had a plump well rounded body, clear olive skin, bright dark eyes and crisp black curling hair. (중략) very generous and very amiable.(Stein “The Good Anna,” *Three Lives* 30: 27-29)

렌트만 부인은 매력적인 여자다. 부드럽고 풍만한 몸매에 매끈한 올리브색 피부, 반짝반짝 검은 눈에 검은 곱슬곱슬 킨 머리를 지녔다. (이다현)

위 구절처럼 스타인은 “잘생긴 몸매, 선명한 올리브색 피부, 곱슬곱슬하고 검은 킨 머리칼, (중략) 상냥한” 등의 기본적인 속성어들을 주로 선택한다. 작가의 판단이나 의견이 개입된 긴 설명 없이 간결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묘사수법

8) ‘→’는 ‘적절한 변환’, ‘→’는 ‘비적절한 변환’으로 명시됨(주석7 참조)

만으로도 독자는 렌트만 부인의 아름다움과 착한 성품을 추상화로 기억하게 된다. 대상의 속성이나 특질을 포착, 단순화시킨 세잔의 그림이 독자의 뇌리에 남는 원리와 같은 이치(소수만 2009: 41)라고 한다.

따라서 아래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영상번역 관점에서 세잔 영향의 속성어기법을 시도하여 재 번역하고자한다. 즉 원 작가 및 감독의 의도를 효율성 및 이해의 근원적 접근이란 관점에서 공감하게 하는 기법임을 비교를 통해 보이고자한다.

ST.2. Mrs. Lehtman was a good looking woman. She(Ø) had a plump well(Ø) rounded body, clear olive skin, bright dark eyes and crisp black curling hair.

TT.2. 렌트만 부인은 아름다운 여자다. 그녀는 다소 뚱뚱하지만 잘생긴 몸에 선명한 올리브색 피부, 반짝반짝 빛나는 눈과 곱슬곱슬하고 검은 컬 머리카락 등을 지니고 있었다. (소수만 2009: 41)

AT.렌트만 부인은 매력적인 여자다. Ø 부드럽고 Ø 풍만한 Ø 몸매에 매끈한 올리브색 피부, 반짝반짝 검은 눈에 곱슬곱슬Ø 검정 컬 머리를 지녔 Ø다.

목표언어인 한국어 관점에서는 ST의 ‘She(Ø)’, well(Ø)’은 생략 전환해도 되므로 TT2의 ‘다소’와 ‘잘생긴’은 생략하였다. 대화합축 기법에서 ‘태도의 격률’에 따라 “간결하라(그라이스 1967)”는 관점에 입각한 전략이 되겠다. 즉 대상의 특질만 포착, 그 외는 생략하여 단순화시킨 세잔의 그림이 독자 뇌리에는 오히려 선명히 기억되는 원리로 ‘지침1’과 같은 맥락이 되겠다.

또 TT2의 ‘뚱뚱하지만’, ‘선명한’은 작가 의도, 즉 렌트만 부인이 아름답다고 계속 주장하는 바와 맞지 않는 속성어가 된다. 따라서 각각 ‘풍만한’과 ‘매끈한’의 속성어를 선택하여 ‘지침2’에 따라 ‘합축된 LS’고정 전략으로 작가가 의도하는 이미지의 영상기호가 연상되게 한다. 즉, 회화기법을 통해 투명한 영상번역에 있어서 ‘합축성 전략’은 군더더기 제거, 필요불가결한 것만 강조하여 전달하자는 취지이다. 그에 따른 예를 보자.

원천텍스트 ‘The Devil Wears Prada(ibid.)’의 대사들은 일상 회화 중에서도

상당히 툭툭 튀는 구어체라는 평이다. 영상기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작가가 부각하고자하는 SS를 TST에서도 재현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신중한 언어기호의 선택에 의한 SS를 고정하는 전략의 번역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침1과 함축성에 의한 ‘전환 방법 2’에서 등가를 위한 LS를 논의해 볼 수 있다. 지침1은 ‘A- α ’의 개념에 따라 전환된 TST는 두 기호의 비율상, 상대적으로 영상기호에 대한 의존율이 높다는 관점이다.

SST.1. Human Resources certainly has an odd sense of humor.(ibid.)

TST.1.1. 인사과에서는 당신 유머감이 짱이라던데(tosky0411 2009)

TST.1.2. 인사과도 완전히 포기했나보네(www.cyworld.com/candy1736 2009)

TST.1.3 인사과에서도 사람을 못 찾았나보네요(tearsflower 2009)

ATT.1.4. 인사과도 완전 포기했나보네

위의 대사 ‘SST.1.’를 직역하면 ‘인사과는 엉뚱한 유머 감각을 가졌네’이다. 그런데 아예 ‘TST.1.1’은 앞뒤의 맥락과 ‘당신’을 지칭하는 LS가 ‘SST.1.’에는 없애 논의에서 제외한다.

본 취지에 따라 영상기호 측면에서 보면, 기존 비서가 너무도 뒤떨어지고 자격미달인 주인공을 추천한 인사과를 빌어 주인공을 비아냥거리는 영상기호에 부합하는 한마디는 ‘LS; odd’이다. 전략에 있어서도 그 ‘LS.엉뚱함(odd)’을 함축하는 한 속성어인 ‘포기’라는 TLS로 영상기호를 고정한 SST에 대한 TST ‘생략’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세잔의 ‘기하학적 양식기법에 근거한 ‘LS on Cézanne’과 같은 맥락의 기법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기존 비서가 신입 비서로 지원한 주인공이 너무도 부족하다고 직접 표현은 못하고 “인사과도 포기함”을 빗대어 발화했기 때문에 역시 대화함축(그라이스 45-50)에서 그 논리의 근거를 들 수 있다.

부연하자면, 어떤 발화의 글자와 관습적 의미 위에 존재하는 상위 차원의 의미, 그 해석은 협조의 원리와 격률 인식에 근거하여 언어 사용자는 일부러 격률을 위반할 수 있다. 즉 ‘지금 몇 시인지 아니?’는 “나는 시간을 모른다, 시간을 알고 싶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등가를 위한 LS의 특성, 즉 ‘작가가 의도하는 SS를 재현하기위한 LS 선택’의 근거를 지침1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지침1의 개념에 따라 전환된 TST는 상대적으로 SS의 의존율이 높다는 관점으로

영상기호를 강조한 텍스트의 번역전략에서 유용하다.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자 회화기법 관점에서 선행연구 「영상번역을 위한 함축성 연구」(이다현 재인용 2007: 132-135)에서의 인용구로 재논의 해보자.

(중략) 금자씨의 빨간 눈화장과 원색의 색감을 통한 느낌은 그 선명함으로 복수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느낌이었다. 그러한 색감 위에 같이 어우러지는 배경음악은 영화의 분위기를 배가시켜<중략>음같은 느낌을 통해 금자의 정서를 엿볼 수 있다. (162)

영화 『친절한 금자씨(박찬욱 2005)』에서 감독은 금자의 빨간 원색의 눈화장의 색감을 통해 단순하지만 선명한 복수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기법을 사용한다. 이는 영상번역에 있어서 함축적인 표현법에 의해 군더더기가 완전히 제거된 필요불가결한 것들만 전달하고자하는 영상기호의 함축성과 일맥상통함을 아래의 예문을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SST.2. 왜 그렇게 눈은 시뻘겋게 칠하고 다녀?

TST.2.1. Why do you wear that red eyeliner too much⁹⁾

TST.2.2. What's with the blood red eye shadow?

(<http://www.cine21.com/Index.htm> 2006)

ATT.2.3. What's with the blood red eye shadow? (이다현 재인용 2007)

위의 TST.2.2, 'blood red'는 단순히 'red'라고 전환한 TST. 2.1보다 원 작가가 의도하는 영상기호의 속성이 잘 감안되어 단지 '빨강'이 아닌, '시뻘겋게'라는 속성어로 잘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TST2.1'의 'too much'는 'TLblood red'라는 속성어를 사용하면, 그 의미가 충분히 전해지므로 사용할 필요 없는 잉여적 LS가 된다. 즉 함축성 이론에서 대화함축 원리의 관련성 및 간결성 이론을 근거로 삭제되어야 할 대상

9)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3&dirId=30305&docId=47805408&qb=7Lmc7KCI7ZWclOq4iOyekOyUqCDsmIHslrQ=&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Rae9ac5Y7tVsscBcumKssc--032445&sid=UFR9FMNDVFAAAHjH6LU 2006)

이 된다. 또한 그가 흰색으로 순수함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기법은 스타인의 기본적인 속성어기법과 세잔의 기본적인 속성이나 특질만으로 실체를 추상화시켜 뚜렷하게 인식시키는 기법과 같은 맥락이며 영상언어를 통한 함축적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The Old Man And The Sea*에서도 헤밍웨이는 밝은 낮이 오면, 언젠간 어두운 밤이 오듯 검은색과 흰색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스타인은 헌터라는 사람을 흰색으로 내면의 허무함, 외로움, 고독함을 표현한다. ‘어둠 속의 하얀 드레스(blackening, a white dress)’등으로 검은색과 흰색의 표현이 많은데 유타의 명암 처리에서 기인하였다는 아래의 인용구의 볼드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 1) **In the dark** the old man could feel the morning coming and as he rowed ... **in the darkness.** (*The Old Man And The Sea*, Hemingway)
- 2) The **brown blotches** of the benevolent skin cancer the sun brings from its reflection on the tropic sea were on his cheeks. (ibid.)
- 3) **Dirty is yellow.**
The resemblance to yellow is dirtier.... (*A PIECE OF COFFEE*, Stein)

피카소의 장밋빛 시대, 『노인과 바다』에서 갈색의 검버섯이나 노란색의 쌀과 같은 비유 등으로 노란색이나 갈색 종류를 희망에 찬, 활기참으로 표현한다. 이런 모습은 인용구의 볼드체에서 보듯이, 스타인의 경우에도 살펴 볼 수 있는데, 스타인의 “dirty is yellow”는 활기참이나 밝음을 나타내는 노란색이 더럽혀졌음을 통해 더 이상 밝음이 없다는 표현이다.

지금까지는 영상기호의 관점에서 속성어기법등에 의한 ‘생략’에 초점을 두는 전략, 즉 ‘지침1’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반대로 강조된 언어기호 관점에서 작가의 의도를 고찰하여 대상의 속성, 특질을 포착, 강조를 통한 단순화로 오히려 작가의 의도를 경제적으로 부각 전달하여도 ‘유표적 구조’전략으로 번역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만드는 피카소기법을 통한 논의이다.

3.2 LS on Picasso

위에 영상번역 관점에서 재논의 되었던 ‘ST.2.’에서 밑줄이 그어진 ‘SL.

woman'에 대해 ST에서 'beautiful'이라고 간단히 서술하지 않고 'a good looking woman'라고 표현한 원 작가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여자다'를 생략하지 않고 반영한다. 이는 원 작가 및 감독이 강조하고자하는 언어기호의 전달에 있어서 본 연구가 'LS on Picasso' 기법이라 명명한 LS 강조전략, 즉 유표적 전략으로 피카소의 큐비즘에 근거한다.

또 스타인의 피카소 화법의 도입은 세잔과는 큰 차이점을 예증한다. 피카소의 그림은 세잔의 기하학을 뛰어넘어 전통 파괴로 이어진 조형의 차원에까지 발전한 점을 보자.

첫째, “부드러운 단추(*Tender Buttons*)”라고 표현한 제목에서부터 언어실험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둘째, 동사 부재의 문장이 많다. “Why is a cup a stir and a behavior(Stein, *Tender Buttons. Selected Writings of Gertrude Stein* 489)”를 보면, 주어 “a cup”에 또 “a stir”라는 명사가 따라붙었다. “stir”는 주로 동사로 사용되는 어휘이다. 또 “Why” 또한 불필요한 어휘이다. 이는 시적허용(poetic license)과는 그 차원이 다른, 언어를 조형적으로 주무르는 스타인의 피카소기법 재현이다. 셋째, 52페이지인 작품의 요소요소에 고정된 범상치 않은 어휘들인 “copper, pressing, blackening, niggled, oxides, mordants, beeswax...”(ibid.) 자체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피카소의 콜라주기법(collage)을 연상케 한다.

이 작품 시기에 피카소처럼 스타인은 언어적 콜라주기법을 추구했다고 말할 수 있다(소수만 2009: 480-81). 스타인도 피카소의 회화처럼 언어의 조형성으로 강조하고자하는 바를 부각했다면, 번역학 관점에서는 영어의 유표적 주제를 언급한 할러데이식 모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영상번역에서는 큐비즘에 근거한 지침(LS on Picasso)에 의해 'Marked Structure' 전략으로 간결하되, 작가의도인 LS를 부각하는 전략을 다음 예들을 통하여 논의할 수 있다.

3.2.1 유표적 주제

텍스트 구성에서 유표적 주제는 각 절에서 화자나 저자의 출발점을 나타내며, 평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할러데이 1978: 134-178). 주제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예로 영화 『친절한 금자씨(박찬욱 2005)』의 대사 ‘SST.3.’의 “너나 잘 하세요”를 살펴보자.

- SST 3. 너나 잘 하세요. (박찬욱 2005¹⁰)
- TST.3.1. Mind your own business.
- TST.3.2. Take care of your own business.
- ATT.3.3. You take care of yourself. (이다현 2007: 63~65)

‘잘 하세요’의 언어적 의미만 보면 SS와의 냉소적 상황과는 맞지 않겠으나 당연히 긍정적인 뜻으로 영어권(TL)관점에서 ‘take care of’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TST3.1과 3.2는 모두 ‘business’에 초점을 두었지 인간의 내면적 구원을 범주화하는 원 작가의 의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대안으로 ‘ATT.3.3. You take care of yourself’를 제시한 바를 재확인한다. 작가의 메시지가 너 자신의 영혼이나 잘 돌보라는 의미에서 ‘yourself’라는 언어기호를 제시했지만 SL에서 강조하는 유표적 주제, 즉 “너나” 부분의 등가적 전달을 위해 ‘You’를 첨가 전환한 것이다.

이해를 위한 지침의 근거는 피카소의 기법에 의하며 본 연구가 제시한 ‘지침2.TST(A’ +a>B’ -β); Marked Structure(LS on Picasso)’로 표시되며 다음 예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된다. 이러한 맥락은 재 강조하지만, 원천텍스트 ‘*The Devil Wears Prada*(ibid.)’의 대사들은 상당히 톡톡 튀는 유표적인 LS의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작가 의도의 영상기호로 고정하여 전달하기위한 언어기호 선택을 강조하는 논의를 회화기법을 활용하여 그 이해를 돕고자한다.

- SST.4. Calls roll to voice mail,... (ibid.)
- SST.4.1. 한 번 울리고 나면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일범 2007: 42)
- TLT.4.2. 0 음성메일로 넘어가면... (오석태 2008: 61)
- TLT.4.3¹¹⁾ 한 번 울리고 나면 바로 음성메일로 가게 되고...
- ATT.4.4. 한 번 울리고 나면 바로 음성메일로 가게 되고...

10) TST.3.1, 3.2;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803&docId=57254646&qb=64SI64KY7J6Y7ZWY7IS47JqUIOyYgeyWt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1&pid=RcMnEc5Y7uhssu9QKSNSsc474326&sid=UHOPIoxbc1AAADWCfdU, (2006)

11) <http://guide.paran.com>, (2009).

무생물 주어로 효율적 부각, 유표적 의미구조를 위한 주제어의 선정은 그 요소를 주어, 술어, 목적어, 보어, 부가어 등으로써, 화자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출발점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원천언어가 영어인 본 연구 텍스트의 한국어 전환에 있어서도 주제어으로써 한 문장의 요소를 선택하는 것은 오석태(2008: 46-47)의 언급에서도 그 중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The book’s with the twins’는 ‘책은 아이들한테 있다’로 해석해야 옳습니다. 만일 ‘책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려면 ‘The twins already have them’으로 적어야 옳습니다. ‘책’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할러데이(1967: 2441)의 유표적 주제구조는 프라그 학파(Prague School)¹²⁾의 복잡한 설명과는 달리 응용하기가 매우 간단하여 매력이 있다. 위의 SST.4.는 무생물을 주어로 배치하여 강조효과를 고정한 예문이다. SLS.4, ‘calls roll’에서 볼 수 있듯이 원천언어인 영어에서 시제는 현재형이다. 주제인 ‘calls’에서 복수를 나타내는 ‘s’의 역할을 통해 원 작가는 모든 수신 전화 모드가 그러한 방법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한 의미이다. 그러나 두 TST.4.2, 4.3와는 달리, ‘TLT.4.2.’는 그 강조된 유표적 주제를 오히려 생략한 예가 된다. 다소 언어기호의 수가 늘어나지만 ‘지침2.’의 방법에 근거, 대안으로 ‘ATT.4.4. 한번 울리고 나면 바로 음성메일로 가게 되고....’를 제시한다.

3.2.2 전치된 술부구조(Marked sequence: fronted verb structure)

전치된 술부구조란 할러데이식 모형을 적용하는 언어학자들은 영어의 유표적 주제를 크게 ‘전치주제, 술부주제, 일치주제’로 나누는데 그 중 술부주제가 가장 유표적인 표현에 해당된다(할러데이 1978: 134-178). 다음에 이어지는 대사 ‘SST.6’에서 전치 술부인 ‘LS. Man’을 주목하자.

SST.5. Man the desk at all times, got it. (David Frankel 2006)

12) 강조하고자하는 부분을 주제에 위치시키는 단순 구조가 아닌, 평언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

- TST.5.1. 항상 자리를 지키란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You said to me, “I have to keep at the desk at all times!” got it.)
- TST.5.2. 자리에 항상 대기하라, 알아들었어요. (Stand by the desk at all time, I see.)
- ATT.5.3. 사수하라 자리를, 알겠습니다. (Defend the desk at all time, got it.)

‘LS. Man’은 원천언어권에서 각각 대신할 수 있는 의미역을 살펴보면 {keep, stand, defend...}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원 작가는 ‘LS. Man’을 선택하여 SS를 고정하는 전략을 세웠을까? SL인 man은 일반적으로 명사가 아닌, 이렇듯 동사로 사용된다. man은 군사적 용어로, 동사적 의미는 ‘배치하다’이다.

원 작가가 {keep, stand, defend...} 등을 전치 술부어로 선택하지 않고 man을 선택했다는 것은 SS에서 보여주듯이 잠시라도 그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표현하려했던 것이다. 따라서 ‘TST.5.1. 항상 자리를 지키란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다시 역 번역해보면 ‘You said to me, “I have to keep at the desk at all times!” got it.’이란 의미로 ‘주어 I’를 비롯해 주제자리에 술부가 위치하지 않게 된다. 또한 ‘TST.5.2.’와 함께 각각 ‘ATT. 사수하라...’처럼 그 의미의 세기(크기, 강조)면에서 원 작가는 그 긴박감을 LS를 통해 더 강조하고자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표적 ‘지침2.’에 근거, 대안으로 위의 ‘ATT5.3’을 제시한다.

4. 연구결과 및 제언

본 연구는 ‘스크린 영어’와 ‘번역 연습’ 수업을 통해 이상의 결과, 즉 ‘회화 기법에 근거한 영상번역 지침도’에 의해 영화 『친절한 금사씨』(박찬욱 2005)와 『The Devil Wears Prada』(Frankel 2006)에 대한 번역분석, 논의 및 대안을 제시하여 영상번역 학습에 순기능의 선례(先例)로 남기고자 하였다.

헤밍웨이나 스타인의 회화적 문체, 즉 글로써 그림이 주는 시각적인 효과를 드러내어 함축적이고 강한 표현의 텍스트에 있어서 등가적 효과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는 지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상이 함께 제공되는 자막번역 및 콘텐츠 학습에 있어서 회화적 문체를 통해 논리적인 이해의 계기로 다음과 같이 주력하였다.

첫째, 회화코드란 예술의 공통분모를 통해 영상번역 해법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둘째, 영상번역 학습자에게 이해를 위한 근원적 접근으로 체계화된 지침은 물론 실제 활용을 위한 기제로 기대한다. 셋째, 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에 교량적 계기가 된다.

예술 분야 내에서 문학에 이어 번역학 관점에서 회화기법의 영향을 논한다는 것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영상번역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 번역학과 문학, 교육학 사이의 학제 간(interdisciplinary) 협력의 시도는 있었지만, 미술 분야와는 전무한 실정이다. 번역과 회화, 문학뿐만 아니라 교육학이라는 여러 분야를 접목하는 연구 방법을 시도한 본 연구는 요즘 활발한 연구 추세에도 부응함은 물론, 소통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단 다년간 필요한 실험과제를 1년 이내에 마무리해야 했기에 한계를 밝힌다. 따라서 『‘회화기법’에 근거한 영상번역 지침도가 번역학습에 미치는 영향』(이다현 2012)이란 텍스트를 사용하여 2012년 1학기 ‘스크린 영어’와 2학기 ‘번역연습’이란 과목을 통하여 본 연구과제인 ‘회화기법에 근거한 영상번역 지침도’가 ‘번역학습에 미치는 순 영향’을 도출한 바 있다. 이후 실험을 더하여 다음 후속 논문을 통하여 논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회화기법’에 근거한 영상번역 지침도’를 기초로 학습은 물론, 비교에 의한 실제적 예를 분석하고 그 영향을 도출하는 후속 실험 연구가 이어져 연구결과에 더한 발전과 가치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역자들 역시 번역 과정에서 본 이론을 거름으로 기술적인 적용과 발전된 규범의 재정립등, 향후의 전망에 관하여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박운철 (2008) 「자막번역의 생략과 삭제」, 『번역학연구』 9(4): 171-175.
 소수만 (2009) 「세잔, 피카소, 스타인, 헤밍웨이: 그들 기법의 영향관계」, 『영어

- 영문학연구』 35(3): 33-53.
- 신지선 (2010) 「번역 현장 교육 과목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운용 방안 제안」, 『통역과 번역』 12(2): 103-122.
- 이다현 (2007) 「영상번역을 위한 함축성 연구」, 『세종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35-42.
- 이다현 (2009) 「영상기호번역 고찰 - 등가들을 이용한 후속방안(3)」, 『통번역 교육연구』 7(2): 141-162.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Chomsky, Noam (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Mouton.
- Grice, Paul (1989) *Studies in the way of Words*, Cambridge & London: Harvard UP.
- Halliday, Michael (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Journal of Linguistics* 3(2): 199-202.
- Haas, Robert Bartlett (1971) “Transatlantic Interview: 1946”, *A Primer for the Gradual Understanding of Gertrude Stein*, Los Angeles: Black Sparrow Press.
- Hemingway, Ernest (1964) *A Moveable Feas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Hemingway, Ernest (1968) *The Old Man and the Sea*, Penguin Books.
- Jakobson, Roman (2000)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14-29.
- Stein, Gertrude (1937) *Everybody's Autobiography*, New York: Random House.
- Stein, Gertrude (1959) *Picasso*, Boston: Beacon Press/Beacon Hill.
- Stein, Gertrude (1972) *Three Portraits of Painters: Cézanne, Matisse, Picasso*, 289-293, *Tender Buttons*, 407-452. Selected Writings of Gertrude Stein. ed. Carl Van Vechten, New York: A Division of Random House (Vintage Books).
- Stein, Gertrude (1936) *Three Lives*, New York: A Division of Random House (Vintage Books).
- Walker, Jayne (1984) *The Making of a Modernist: Gertrude Stein from Three*

Lives to Tender Buttons, 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Ref.:http://www.pearsonhighered.com/assets/hip/us/hip_us_pearsonhighered/sample_chapter/0131579061.pdf (2009).

Ref: http://www.coe.int/t/dg4/linguistic/Source/Framework_EN.pdf (2009).

이후남 (2006) http://www.cine21.com/Article/article_view.

<http://www.cine21.com/Index/index.html> (2006).

http://www.cine21.com/Article/article_view (2006).

<http://guide.paran.com> (2006).

<http://movie.naver.com/movie/bi/pi/basic.nhn?code=8232> (2006)

분석대상텍스트

ST1: 박찬욱 (2005) 『친절한 금자씨』, 서울: C.J 엔터테인먼트..

ST2: Frankel, David (2006) *The Devil Wears Prada*, New York: Twentieth Century Fox.

TT1; 오석태 (2008) 『오석태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자막없이 보기』 서울: 스크린영어사.

TT2: 이일범 (2007)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서울: 스크린영어사.

[Abstract]

**The Painting Techniques-Based Screen Translation Guide and Its
Influence on the Translation Learning
— Through the Painting Techniques-Based Screen Translation Guide**

Lee, Da Hyun
(Baekseok Arts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help understand screen translation education and screen contents application classes which have been successfully adopted in the field of current English education with the help of rapidly developing demand of practical English education and media-related translation materials. In this paper, I analyze how successfully such renowned artists of different genres as Picasso, Czanne, Stein, and Hemingway, employed painting(or literature) techniques of other artist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works. The cases of Picasso who employed Czanne's painting techniques for his work, of Stein who employed painting techniques of Czanne and Picasso for his literature, and of Hemingway who used in his writing the painting and literature techniques of the three artists mentioned before, will be carefully explor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I will suggest that the study of screen translation should also be able to improve greatly by taking the same path as they did. And in doing so, I will also show that the Screen Translation Guide(STG) which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e painting techniques will have a very important role.

▶ Key Words: Cezanne, Hemingway, LS on Cézanne, LS on Picasso, Picasso, Stein, Screen Translation Guide and Models

이다현

백석예술대학교 외식산업학부 조교수

dhlee@bau.ac.kr

관심분야: 영상번역 및 평가, 영상번역규범 및 교육, 문화코드 및 영상번역

논문투고일: 2014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14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 2014년 3월 12일